

10 오피니언

사설

‘인공지능’ 적절한 가이드라인 시급

인공지능 챗GPT가 전 산업에 걸쳐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주목 받고 있다. 사용자 수도 출시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

챗GPT는 대학가를 포함한 교육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학습능력은 이전 AI 프로그램보다 몇 발자국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챗GPT가 푼 미국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는 합격 수준의 고득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학습 능력을 지닌 챗GPT를 교육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조사와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학습 그 자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챗GPT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서구권 대학에서는 챗GPT가 작성한 글이 최고점을 받는 등 교육계 전반에서 부정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당장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도 챗GPT를 과제, 시험 등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상황이다. 챗GPT로 인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다.

대학가는 챗GPT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학내 보직자와 교수를 대상으로 챗GPT 활용법 강의를 열기도 했다. 챗GPT와 관련한 각 대학의 대응을 봤을 때, 우리대학의 대응이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느껴진다. 지난달 관련 부처가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우리대학 역시 챗GPT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긍정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대학이 취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

이 있을까. 무엇보다 대학은 교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활용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논문, 과제 대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윤리강령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채로 교내에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다면 윤리적인 면에서의 폐해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학습과 교육의 성취 수준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은 학내 구성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가이드라인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 폭이 분야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강의나 학과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가령 언어학과의 많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히려 챗GPT와 언어 교육의 접목 방안을

찾고 있다.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학업 효율을 높일 발판이 될 것이다.

교육 혁신도 필요하다. AI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다. AI를 다루는 능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는 만큼, 대학은 모든 학생이 관련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높아지는 만큼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챗GPT의 등장은 어쩌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대학의 적절한 대응이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좀 더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대학의 발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세시봉

형제의 나라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고마워 형” 튀르키예로 파견된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 텐트에 튀르키예 사람들이 적은 한글 문장이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부근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튀르키예에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아픔은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해 네 번째로 큰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다. 이때 튀르키예군은 주둔하고 있던 장소 근처에 튀르키예 수도의 이름을 딴 ‘양카라학교’라는 고아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어 2002년 월드컵 3~4위전에서 튀르키예와 한국은 다시 만났다. 이 경기에서 관중석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인들은 튀르키예 국가가 울려 퍼질 때 튀르키예 국기를 흔들며 두 국가에 감동을 안겼다. 경기 이후 양국 선수들은 유니폼을 바꿔 입고, 국기를 바꿔 들며 진정한 월드컵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튀르키예에서 지진 소식이 들린 후 삭막한 현장으로 구호 물결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연예인, 시민, 민간 구호단체 등 여러 곳에서 튀르키예에 마음을 전하고 있다. 구조견 ‘토백이’는 앞발을 붕대를 감고 10여 명의 사망자를 수색했다. 우리학교 또한 구호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는 “우리는 다른 세상에 자리 잡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심장은 똑같이 뛰고 있다”고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것이 세계 공동체에 몸담은 인간이 가진 힘이다. 먼 거리에 있는 국가의 아픔도 함께 심장이 뛰는 인간이기에 공감하고 인류애를 실현한다. 최악의 경제난을 맞은 레바논은 튀르키예에 구호대를 파견했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 위기, 신종 바이러스 출현, 전쟁 위협 등 국제사회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촌도 조금 삭막해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튀르키예와 피를 나눈 형제들의 연대의 피는 아직 몇지 않았다. 피가 들고 함께 심장이 뛰는 동안은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튀르키예에 전하고 싶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도움’과 ‘공동’

바이라인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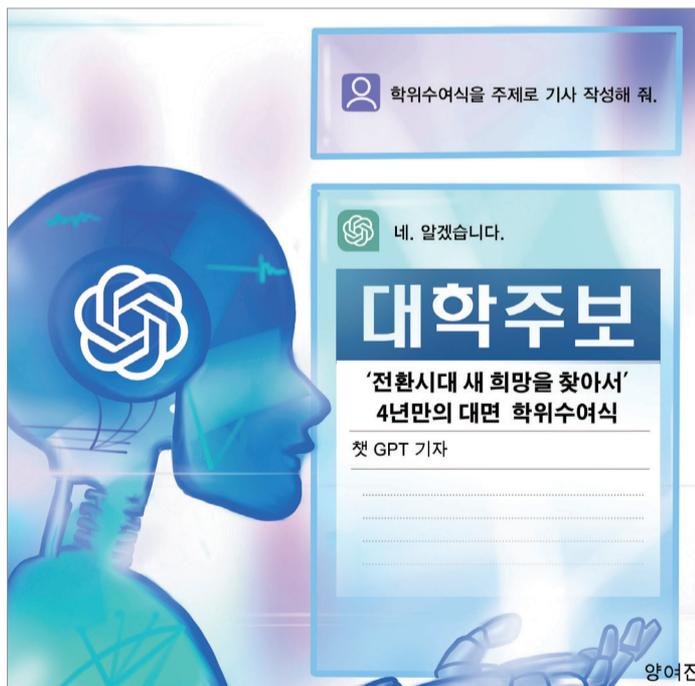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삶에 녹아들었다. 고객 상담, 금융 분석, 주식 예측 등 AI의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도 창작 분야만큼은 단연 사람을 대체할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챗GPT 등장으로 그 기조가 바뀌었다. 챗GPT가 나타난 현시점,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

창작과제를 할 때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밤을 새우면서 커피와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뜨는 해를 보며 잠든 기억도 슬하다. 그러나 이제는 소셜, 시, 논문 등을 ‘~해줘’라고 요청하면 1분 만에 모든 게 작성된다. ‘Ctrl+C’와 ‘Ctrl+V’만 있으면 과제의 70%는 똑딱이다. 이제 밤을 새워가며 과제를 작성할 일이 줄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사 작성 역시 변화가 일 것이다. 챗GPT가 언론 분야에도 사용된다면 기존에는 사람이 수행했던 발제, 취재, 기사 작성, 편집 등 업무 대부분이 자동화될 수 있다. 과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듯, 언론 분야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는 언론의 의미와도 상충한다. 언론계에도, 기자에게도 좋은 일이다. 챗GPT가 작성한 기사에 인간 기자의 이름으로 바이라인을 채우며 커리어를 쌓으니 말이다. 다만 그 바이라인의 주인은 진정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저작권 문제가 본격화되면, 그 바이라인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자의 증표였던 바이라인이 무색해질 것이다. 실제로 미국 테크 매체 C넷에 실린 기사는 AI가 작성한 기사의 바이라인을 ‘C넷 머니’로 변경했다.

글을 마치며, 이 기사 일부는 챗GPT가 작성했다.



만평 언론과 챗GPT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군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엔디